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2년 (단기 4345년) 1월 20일 (금)

http://dongguk.or.kr

제225호

## 이연택 회장 제26대 회장에 재추대

### “동국인의 긍지와 위상 제고 위해 더욱 분발하자”

#### 이사회-총회서 만장일치 가결

우리 23만 동문들의 동국사랑 구심체인 총동창회 제26대 회장에 이연택 현 회장이 재추대됐다.

본회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시30분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1년도 임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연택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는 금년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연택 회장은 연임 인사말을 통해 “동국은 우리 모두가 평생 떼어 놓을 수 없고 함께 가야하는 우리의 얼굴이다. 우리 동문들의 힘을 모아 동창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모교 발전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헌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장인터뷰 5면)

#### 임시의장에 송석구 상임고문

이날 회의는 본회 전영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지난 1년간의 크고 작은 동창회 활동과 재무 현황 등이 동영상으로 소개된 뒤 제1부 이사회, 제2부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이사회는 송석구 상임고문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제26대 임원 선임 건을 상정했다.

임원선임 건과 관련, 정환민(65/69농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 등 활동을 해왔으나 신청자가 없어 업무를 종결하고 ‘회장 추대위원회’로 업무를 이양했다”고 보고했다.



▲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연택 현 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재 추대했다.



▲ 이제곤 감사



▲ 김진억 감사



▲ 이홍섭 감사

#### 회장 추대위원회 활동 보고

이해 송석환(64/68농경) ‘회장 추대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등 선거규칙 제25조에 따라 지난 11월23일부터 추대위원회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하고 “이연택 현 회장이 지난 2년간 후배 장학사업을 비롯해 동창회의 조직과 재정 안정 등에 많이 기여했고, 앞으로 더 확고한 기반 구축과 현안 문제 마무리를 위해 재 추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추대과정에서 이연택 현 회장은 다른 좋은 분을 모실 것을 주문

하며 극구 사양했으나 고문단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추천, 지지한다는 결의가 있었음을 전달하고 동창회 위상과 모교 발전을 위해 한번 더 봉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오늘 오전 최종 승낙을 받아냈다”고 부연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추대위원회의 보고가 끝나자 송석구 임시의장은 ‘임원 등 선거 규정 제25조 5항’을 보면 “이사회는 추대위원회로부터 임원으로 추대된 자에게 제8조 규정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추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제26대 회장 선임을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참석 임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제26대 회장 선임안을 가결 시켰다.

#### 재추대 제안 요지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 조직·재정 등의 확고한 기반 구축위해 한번 더 봉사해 달라”

감사 이제곤 · 김진억 · 이홍섭 동문

이어진 감사 선임에서는 이제곤(64/68경제) 본회 현 감사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감사인 김진억(73/80경영, 국민은행) 이홍섭(80/84회계, 공인회계사)동문이 추천을 받아 동의를 이루어졌다.

제2부 총회는 임시의장으로 송석구 상임고문을 다시 뽑고, 이사회에서 가결된 제26대 회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 없이 인준했다.

축사에 나선 박종윤(55/59경제)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가 잡음 하나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 동창회가 예년에 없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수준높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이제 재단·학교·동창회가 힘을 모아 동국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안채란(48/54국문) 원로동문은 “105년 모교 역사에 동창회관 건물 하나도 없어 부끄럽다. 이제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회관은 필히 짓도록 하자”고 건의, 참석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모교 교수합창단(단장=연기영 교수)은 본회 발전을 위해 합창단 기금 중 3백만원을 이연택 회장에게 전달한 뒤, 축하 ‘나는 행복합니다’와 ‘청산은 나를 보고’ 등의 노래로 축하분위기를 만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東國大同窓會報 를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www.donggu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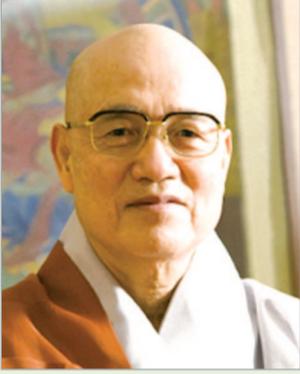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를 쳐보세요

· 각종 모임, 동정등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dongguka@naver.com)과, facebook(동국대 동창회)도 동문들의 소통공간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성찰통해 '혁신과 변화' 박차

학교법인 이사장 정련스님



대학은 미래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사회에 진정 필요한 인재상을 찾아내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쉽지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 끊임

없이 성찰해야 한다. 2011년이 '제2건학 리스타트 동국'의 원년이였다면, 2012년은 지난해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동국 중흥을 위한 혁신과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금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법인운영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법인산하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책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되 보다 작은 사안들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고자 한다. 동국대학교가 지적 깊이와 인격적 넓이를 아울러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표사로서의 대학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법인의 목표이다.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질적 도약

모교 김희옥 총장



새해는 동국중흥의 토대를 이룬 지난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모습을 보이겠다. 먼저 종단의 지원을 받아 우수인재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등 종단 차원의 제2건학운동을 전개하

는 일이다.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하는 장학생을 20명 선발하고, 향후 100명까지 확대해가는 방안을 추진하며, 동아시아 불교연합대학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겠다. 교육부문은 미래지향 학문구조개편의 시행과 보완책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융복합 신설학과를 추진하고, 연구분야는 연구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시설 및 교육인프라 확충이 계속되며, 총무로관, 해화문 부지 및 운동장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공학관인원서관이 리모델링되며 일산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의 바이오관 및 기숙사 건설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진행하는 보금자리 기숙사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운동장 · 수영장 친환경 개발

부지 7천1백평 매입

모교의 운동장과 수영장 개발이 가시화된다.

모교는 고질적 문제중 하나였던 공간부족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운동장과 수영장 토지 23,499㎡(7,100여평) 일체를 지난해 12월 28일 매입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매입해 개발을 추진하게될 운동장과 수영장 부지는 학교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넓은 공간으로 이미 서울시로부터 연면적 18,000여 평, 6개층 개발승인을 받아 향후 다양한 개발 모델 수립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영장 부지의 경우 만성적인



▲ 운동장과 수영장 개발 정면 조감도

학교 전체 면적의 20% 해당  
지상은 잔디구장이나 옥상공원 검토  
지하는 공연장 · 체육관 등 편의시설

체육시설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하공간을 개발해

강의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박물관, 공연장, 스튜디오, 체육관 등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공간은 남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잔디구장이나 옥상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과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친환경 캠퍼스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국가고객만족도 7위

생산성본부, 사립대 부문  
지난 3년간 계속 상승세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NCSI) 조사에서 모교가 사립대학교 부문 7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별 결과로는 고객기대수준(76점)과 인지서비스 품질 부문(71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5.6%, 1.4% 상승했으며, 고객 불평률(7.2점)은 19.6%의 매우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학부 재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기준 항목으로는 △고객기대수준 △인지서비스 품질 △인지가치수준 △고객불만 △고객충성도 등 이었다. 모교는 2009년부터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원 회비 1년에 2만원 ... 지금 보내시면 좋습니다.

동문님께서 내주신 년회비와 임원회비는 후배장학사업, 동창회보 제작, 조직강화 및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일반회원 년 회비 : 2만원

• 임원 분담금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 송금계좌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3, 736-4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상영 KCC 명예회장 ·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 각 1억원

아름다운 동행으로 미래의 희망 심는다

고시특별장학금 지원 격려

본회 고문인 정상영(57/61법학, KCC그룹 명예회장)동문이 지난해 12월16일 고시반 격려를 위해 특별장학금 1억원을 보내왔다.

KCC그룹은 화학기업인 (주)KCC와 KCC건설이 주력사로 자산기준(공기업 제외) 25위이며, 임직원 수는 4,620명에 이른다.

주요 관계사로는 금강레저, KCC자원개발, KAM,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있으며, 프로농구단 KCC 이지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최우수 기업상(1992),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대상(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대상(2008), 수출의날 동탑산업훈장(1997·2009) 및 7억불 수출무역탑(2010) 등을 수상했다.



▲ 정상영 명예회장

- (주)KCC,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외
- 동탑산업훈장
- 7억불 수출 무역탑



▲ 이화일 회장

- 조선내화(주) 대한소결금속, 화인테크 외
- 은탑·철탑산업훈장
- ISO 9001, 2000 인증획득

모교 발전 위한 장학기금 보태

이화일(61/65상학, 조선내화(주) 회장)동문이 구랍 9일 본회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보내왔다. 이 동문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3억5천3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평소 동문간 대·소모임에 말없이 후원하는 등 동문 결속과 동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 동문이 경영하는 조선내화는 국내 내화물 시장 점유율 1위로 2010년 현재 국내의 19개 공장에서 공장특수 알루미늄질 벽돌, 고알루미나질 벽돌, 캐스팅 블록, 캐스터블 내화물, 모르타르, 벨브용 내화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대한소결금속(주), (주)대한세라믹스, 대전열병합발전(주), (주)화인테크, (주)조선내화이엔지 등 총 11개의 계열사가 있다.

회장 추대위원 10명 1억원 조성  
동창회 발전에 솔선수범 선례 남겨



▲ 안채란 동문



▲ 형종호 동문



▲ 원용선 동문



▲ 한우삼 동문



▲ 송석환 동문



▲ 서영준 동문



▲ 김진문 동문



▲ 이인정 동문



▲ 나경미 동문



▲ 김오현 동문

본회 제26대 회장 추대를 위한 '회장 추대위원회'가 임원 등 선거관리규칙 제25조에 의거, 지난해 11월23일 구성되어 활동을 벌였다.

추대위원회는 임원후보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 회장이 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추대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본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임원 후보등록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추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추대위원으로는 △안채란(48/54국문, 영석학원 설립자) △형종호(56/61법학, 삼공기어공업 회장) △원용선(59/63영

문, 남양이엔씨 회장) △한우삼(63/70농학, 태양금속 회장) △송석환(64/68농경, 동진기업 회장) △서영준(64/68법학, 동양기업 회장) △김진문(64/70경영, 신성약품 회장) △이인정(65/72상학, (주)태인 회장) △나경미(70/74정외, 제일테크노 부사장) △김오현(76/80체교, BK그룹 회장)동문이 위촉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송석환 동문이 위원회에서 호선되었다.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갖고 후보군 물색과 면담 등의 활동을 벌였으나 모두 사양, 이연택 현회장을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설득에 나서 동의를 받아냈다.

한편, 추대위원회는 이연택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원 10명이 1천만원씩 1억원을 모아 지원, 동문사회에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고 해산했다.

교수합창단 3백만원

모교 교수합창단(단장=연기영 교수)이 지난해 11월30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 자리에서 장학기금으로 3백만원을 본회에 기탁했다. 교수합창단은 이날 축하공연을 위해 참석했다가 총동창회에서 후배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 것을 보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동문

회관기금 5천만원 약정



김현정(물리 79입학, 모교 반도체 과학과 교수)동문이 지난해 11월22일 본회 사무실을 방문해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장학기금으로 3백50만원을 기부했다.

김 동문은 1979년 모교에 입학했다가 4학년때 독일로 유학해 괴팅겐대에서 학사학위를, 함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동문은 모교에도 발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과 동행의 모범을 보여왔다.

전종무 동문

장학기금 5백만원



전종무(81/85미술, 田畧러리 대표)동문이 구랍 27일 장학기금으로 5백만원을 기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 대상 수상, 새만금방조제 준공기념 상징 조형물 '약속의 터전' 설치 등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전 동문은 모교 81학번 모임을 이끌며 동국발전에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있다.

# 동국사랑 희망 콘서트 · 산사 체험 추진

## 금년 사업계획, 모교와 함께하는 행사 늘려

본회의 금년도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안이 조직 활성화와 화합, 도약에 바탕을 두고 마련되었다. 새로 구성되는 제26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주요 사업 및 행사로는 3월 정기총회를 비롯 1,2학기 장학금 수여식, 동창회보 발간, 동국인 골프대회, 동국포럼, 모교 방문 & 남산걷기대회, 동국인의 밤 등이 예년과 같은 형태로 치러진다.

금년에 신규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동국사랑 희망콘서트, 템플스테이, 미주동문회 방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총동창회가 특별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동국사랑 희망콘서트는 10월 중 개최를 목표로 금명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템플스테이는 조용한 산사를 찾아 모교의 건학정신을 되새기고 수련과 명상으로 자아발견과 심신수련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처음 개최된다.

미주총동문회 방문은 국경을 넘은 선 후배간의 재회와 동국사랑을 나누기 위

한 것으로 2010년 중국총동문회 방문에 이은 격년 해외방문이 된다.

연례행사로서 장학금 수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과 9월에 가질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회는 2월과 8월, 11월 등 3차례 열린다.

- 서울 · 경주 장학금 수여
- 지부 · 지회 회장단 간담회
- 동창회보 년 4회 발행
- 직군별 모임 활성화

조직 활성화 노력으로는 각 지부(회) 회장단 연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회원 발굴 및 참여분위기 조성 등을 꾀해 나가며, 지역과 직군별 동문 간담회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 지부(회)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유명무실한 지부

(회)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나선다.

동창회보는 년 4회 발행을 목표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발행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특히 회보는 회원 간 소통과 참여 측면에서 발행주기를 좁혀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발송비용 등이 걸림돌로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정보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동국포럼은 봄, 가을 년 2회로 예정되어 있다. 체육 및 골프행사로는 5월에 제6회 동국인친선골프대회와 제23회 영남지역 동국인체육대회가, 10월에는 제2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1월 영남지역 동문골프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모교 방문행사로는 5월 하순에 입학 50주년(62학번), 30주년(82학번) 홈커밍데이가 기다리고 있으며, 10월에는 제2회 동국가족 남산 걷기대회가 열린다.

한편 1년 행사의 휘날레인 '2012 동국인의 밤'은 12월12일(수)로 예정하고 있다.

### ◆ 2012년 주요 행사 계획 ◆

구분	행사 내용
1월	- 회보 발행 - 고문단 회의
2월	- 상임위원회의 - 동국장학회 이사회
3월	- 상임위원회의 - 1학기 장학금 수여식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제26대 임원수첩 제작 - 미주 동문회 방문
4월	- 회보 발행 - 동국 포럼 - 상임위원회의 - 지부(회) 회장단 간담회
5월	- 상임위원회의 -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 - 동국인 체육대회(경주) - 입학 30·50주년 홈커밍데이
6월	- 상임위원회의 - 동국장학회 이사회
7월	- 회보 발행 - 상임위원회의 - 템플 스테이
8월	-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지부(회) 회장단 간담회
9월	-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 동국 포럼 - 상임위원회의
10월	- 모교 방문 & 남산 걷기대회 - 회보 발행 - 상임위원회의 - 동국사랑 희망 콘서트
11월	- 고문단 회의 - 상임위원회의 - 동국장학회 이사회 - 영남지역 동국인 골프대회
12월	- 상임위원회의 - 동국인의 밤

## 고시반 특별장학금 1억원

사시 2차 5백만원-1차 50만원씩 지급



▲ 국가고시반 교수·학생격려 오찬이 구랍 28일 있었다

본회는 정상영 고문(57/61법학, KCC 명예회장)이 국가고시 특별장학금으로 내놓은 1억원가운데 1차로 8천4백50만원을 구랍 16일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모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법, 행정, 입법시험 합격자 11명에게 각 5백만원,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3명에게 각 50만원과 전·현직 지도교수들에게도 일정 금액씩이 지급됐다.

정 고문은 지난 12월14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인의 밤에서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들을 보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고시 합격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국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장한 일이다"고 치하하고 "합격자들은 위로의 뜻으로, 또 준비생

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1억원을 내놓을테니 유용하게 써달라"면서 본회에 1억원을 기탁했었다.

### 사시합격자 4백만원

### 후배들 위해 릴레이 기부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석봉 김보경 장수영 박운희 양병열 등 5명이 80만원씩 각출, 모두 4백만원을 모아 사시 1차합격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구랍 28일 김선정 사법시험반 지도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들 합격자들은 정상영 본회 고문이 보내준 격려금 5백만원의 일부를 다시 후배들에게 릴레이 기부하는 미덕을 보였다.

## 국가고시반 격려 오찬

### 교수·학생 50명 참석 "좋은 성과로 교위 선양"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및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초청 격려 오찬이 이연택 회장을 비롯해, 김상겸 법과대학장, 김선정, 임규철, 최성호, 최응렬 교수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28일 엠베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열렸다.

이연택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 덕분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항상 후배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2차 시험에는 여기 참석한 모든 후배들이 꼭 합격해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 제2, 제3의 정상영 고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겸 법대학장은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 고마운 뜻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 1차 합격자들은 이 자리가 최종 합격자 및 지도교수들로 부터 공부 노하우와 앞으로의 진로 설정 등에 대해 조언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되었다고 말했다.

## 농협 단체 년회비

매년 150만원씩 납부



▲ 전찬익 회장

농협직장동문회 (회장=전찬익, 75/82농경,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는 지난해 11월22일 본회에 농협 동문

75명의 개인 연회비 2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일괄 보내왔다. 농협동문회는 매해 연말마다 동문 75명의 연회비 150만원을 보내오면서 본회 업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동문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제26대 총동창회장 이연택 신년특별 인터뷰

# “올해 명문도약 전략 프로젝트 ‘영재학숙’ 착공”

## 동창회 · 모교 · 재단 · 종단은 한 마음으로 가는 ‘四輪同進’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2012년 새해엔 동국영재장학숙을 건립,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응시반 학생 200명을 수용해 집중 지원하고, 건물 일부만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모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본회 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재선된 이 회장은 “그동안 수행해왔던 공직생활도 이번에 모두 정리하고, 오직 총동창회 발전과 모교의 4대 사학 진입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 모교 성장엔진 역할 다할 터

-총동창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총동창회란 단순히 동문끼리의 친선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기구입니다. 그 대학 출신이 각종 국가고시에 얼마만큼 합격하고, 대기업 입원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등이 출신 학교 위상을 가능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동문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조직의 중심인물이 되고 있다는 데 긍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 동문은 자기 성공의 모습을 ‘자기성취의 개인화’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칭 명문대학이라면 떳떳하게 출신학교를 밝히며 자긍심을 갖고 자기 자리를 자랑하고 다니는 반면에 우리는 극히 일부지만 굳이 출신학교를 밝히려는 사고들이 결여된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허무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는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문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하여 옛 명성을 되찾자고 호소합니다. 저는 총동창회, 모교, 재단, 종단이라는 4개의 수레바퀴, 즉 사륜동진(四輪同進)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부터 모교 발전의 동력을 살리는 전위에 서고자 합니다.”

### 영재학숙 겸 동창회관 추진

-근래 모교는 대운동장 매입 등 괄목할만한 발전과 비상을 꿈꾸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모교는 주요 일간지 평판도에서 3-4계단이 나 뛰어오르는 등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총동창회장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숙원사업이었던 대운동장과 수영장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그 자리에 친환경적 녹지공간과 강의동 등 최

상의 캠퍼스를 꾸민다는 구상을 보고 23만 동문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우리 총동창회도 모



교 인근에 동창회관 부지를 확보해 금년중 착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동창회관은 교통편의성, 접근성, 호환성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라는 브랜드가치의 상징성을 감안해 최적의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동창회관의 용도는 철저하게 모교 재학생들의 영재학숙으로 꾸미고 동창회 사무실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금명간 ‘동창회관건립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창회관이 건립되면 이를 수익사업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 동창회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 장학생 5백명 달성에 큰 보람

-지난 2011년을 돌아보면서 총동창회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일간지 평가에서 모교 평가순위 상승을 위해 동창회가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은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재학생 장학금 규모를 연간 40명 안팎에서 5백명으로 늘렸고, 지지난해에는 교수연구비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수는 여타 유력 대학들과 비교해보아도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중앙일보 평가에서 모교가 2010년보다 3계단 상승하고 특히 인문계 학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동창회가 각 학과별로 고르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동문들

이 십시일반 협찬해주셨고, 일부 동문들은 천만원대에서 역대까지 소중한 재원을 쾌척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6년만에 총동창회 명부인 ‘2011년판 동국인명록’을 제작, 배포한 일도 큰 사업이었다고 회고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동창회보 발간사업,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 동국포럼, 홈커밍데이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회향함으로써 총동창회가 안정기조를 찾아가고 있다.

### 조직 강화로 안정기반 정착

-올해 총동창회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동안 결속력이 떨어진 학과별, 지역별, 친목별 단위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가동율을 높여 조직력이 강화된 총동창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동창회 산하에는 200여개 단위조직이 있지만, 자생력 있는 동문회보다 ‘인큐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부나 지회가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2년 임기동안 7080학번을 비롯한 90학번까지 참언문호를 넓혔습니다만 아직도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로 많이 수월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회원들과 스킨십도 강화하고, 임원들의 세대교체도 병행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창회는 23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동창회의 모든 재정과 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론화된 절차로서 동창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에 2만원씩내는 일반 동문들의 회비가 크게 늘었는데 동창회의 미래를 위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동창회가 과거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동문사회에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동창회는 모교발전 ‘원천수’ 역할

-우리 동문과 학교 당국, 그리고 모교 재학생들에게 당부 말씀이 계시다면...

“모교의 발전은 저를 비롯한 동문들에게 필생의 서원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대학 4년은 자신의 4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 모교의 위상이며, 동창회의 동력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뒤에서 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우리 모교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종단과 재단, 그리고 모교와 동창회가 서로 끈을 잘 연결해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총동창회는 시간의 기부, 재정의 기부, 봉사의 기부자입니다. 우리 동문은 모교의 응원군이자 격려자이고 또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모든 정성의 기부자입니다. 이점 모교는 명심하고, 학생과 학교, 재단 역시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합니다.”

이 회장은 “동국대학교는 총동창회를 비롯 학교, 재단, 종단 등 4개의 교각으로 이루어진 1인4각의 동체라고 못박고, 이중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의 원천수 역할을 한다”고 거듭 입장을 정리했다.

이 회장은 조용한 말씨, 다정하고 친근한 표정, 자애와 품격을 지닌 캐릭터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그의 직무 스타일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회장은 1961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총무처장관 △노동부장관 △일본 동경경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및 법과대학 석좌교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6대 대한체육회 회장/제26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1997년, 고려원) 등이 있다.

### ■ 인터뷰어 이계홍

<65/69국문,본보 홍보위원,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 전국에서 '送舊迎新' 풀뿌리 모임 잇따라

## 총회 및 송년회

### ROTC 정기총회 겸 19기 임관30주년



ROTC동문회(회장=이영균 68/72 도시공학, 10기, 우향기획 대표)는 지난해 11월18일 삼각지소재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원용선(59/63영문, (주)남양이앤씨 회장), 김대식(66/70 통계, ROTC중앙회 상임부회장), 박 ▲박대신 회장 정극 학술부총장, 이현 학생군사교육단장 등 내외빈과 4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9기 임관30주년 및 2011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박대신(69/73국문, 11기, (주)동우 대표이사)동문이 신임 회장으로, 김세준(71/75화학, 13기, 제일모피(주) 대표이사), 권오식(78/82공경, 기아자동차 차장)동문은 감사로 취임했다.

### 여자총동창회 송년의 밤

여자총동창회(회장=김영순, 65/69화학, 모교 명예교수)는 구립 2일 모교 학술문화관 지하 키친에서 홍성숙(61/65불교, 불교여성개발원 부회장), 김옥경(64/68 응생, 경원전문대학 교수), 홍월표(65/69법학, (사)미래가족문화연합회장), 박미진(75/79건축, 인천대학교 교수), 조충미(81/85교육, 현재와 미래유학 대표), 이춘필(99/01불원)동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가졌다.

여자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후배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카페 : <http://cafe.daum.net/DGUAW>, 장학후원금 계좌 : 신한은행 110-334-809258 조윤오.

### 불교학과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불교학과동문회(회장=홍파스님, 63/67불교, 관음종 총무원장)는 구립 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오키드룸에서 권기종(60/64불교, 모교 명예교수)상임교문, 김용표(69/78불교, 모교 불교학과 교수)사무총장 등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사업 보고와 감사 보고 및 2012년 동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신입회원 인준 건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 정치외교학과 임시총회

정치외교학과동문회(회장=박태권, 71/75정의)는 구립 2일 충무로소재 대립정에서 박영식(57/61정치)교문, 고유규(70/74정의, (주)동우들 대표이사)전 사무총장, 차문희(72/79정의, 경남기업(주) 상임감사)감사, 각 기별 회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정의과동문회는 오는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식품공학과 창립50주년 기념식

식품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학과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구립 21일 오후 모교 상록원에서 노완섭(61/65 식품, 1기, 모교 명예교수), 김명호(61/67식품, 1기, 거목문화사 대표), 박용철(62/69식품, 2기, 호전실업 대표이사), 송래섭(66/70식품, 6기), 장영상(66/73식품, 6기, 중부대학교 교수), 배영민(68/72식품, 8기, (주)하나향료 대표이사)동문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결과 및 회계보고에 이은 1부 정기총회(사회=이권하 총무, 76/83식품)에서는 신입회장에 김종승(74/78

식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동문, 감사에는 이승원, 권기성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황(72/08식품, 일광무역(주) 대표이사) 전임회장은 식품공학과 발전위원장에 추대했다. 한편, 노완섭(1기), 장영상, 배영민 동문 등 역대 회장에게 공로장, 김명호, 박용철, 송래섭, 이유상동문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 불교대학원 임총 겸 송년 법회



불교대학원동창회(회장=문황진, 92/93불원, (주)MAX해인산업 회장)는 구립 5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에서 3백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임시총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송년법회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2011년도 결산승인 건과 2012년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 경영전문대학원 송년행사



경영전문대학원동문회(회장=최종윤, 83/85경원, 우리종합건설(주) 회장)는 구립 1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유석천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역대 원장들과 역대 동문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 회원 등 3백여명의 동국 경영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 사회과학대학원 정총 겸 송년의 밤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회장=김석만, 89/90사원, (주)신한종합건설 회장)는 구립 23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가졌다.

▲김석만 회장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부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행운권 추첨은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비롯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김석만 회장, 심규삼(00/01사원, 신영테크 대표) 울산지역회장, 박병식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등이 70여점을 협찬, 한층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 교육대학원 장학금 모금 박차

교육대학원동문회(회장=성해스님, 88/90교원, 삼각사 주지) '2011 동교인의 밤'이 구립 12일 세종호텔에서 동문 및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영남(90/92교원, 세종고등학교 교장) 전 동문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했으며, 또 장학 및 발전기금으로 회장 성해스님 200만원을 비롯해, 황경환 동문 200만원, 황영남 명예회장 100만원, 수명스님 100만원, 경담스님 100만원, 지명스님 100만원, 헌장스님 100만원 등을 모금했다.

### 서초동문회 송년회 화기애애

서초동문회(회장=문준수, 69/74인철, (주)서일벨라민 대표이사) 송년 행사가 구립 15일 교대역 부근 연평도 꽃게집에서 최석 고문(57/61영문)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처음 참석한 막내 조우영(97/02건축, 법무사)동문 환영과 함께 덕담으로 친목을 다졌으며, 윤홍섭 고문은 회원들에게 송년 선물로 케익을 일일이 전달했다.

### 강서동문회 송년모임

강서동문회(회장=김낙돌, 64/71경제, 국제품질인증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오후6시 신도불이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2012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0일에는 박승정(59/65경제), 도철기(65/69정의, 우성마이캐스팅 전무이사), 구상찬(77/81체교, 국회의원)동문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최종욱(60/63경제)동문의 색소폰 연주와 서광수 아코디언동호회장의 연주가 어우러져 한층 흥겨운 분위기가 되었다.

### 인천지부 임원 송년회

인천지부동문회(회장=이환섭 71/75경행)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6시 인천 라마다호텔 송도 한식당에서 송년회 및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번 임원회의에는 이환섭 회장과 최종협 명예회장을 비롯 정해룡(78/82경행) 인천지방경찰청 차장 등 동문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으로 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개최하고 년회비는 30만원으로 정했다.

### 용인동문회 우태주회장 연임

용인시동문회(회장=우태주, 66/70경영, (주)라인텍 대표이사) '정기총회겸 송년회'가 구립 28일 풍덕천동 크라운비페에서 민병철(62/66상학,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박만갑(64/68정의, 대산건설(주) 대표이사), 조창현(64/68경행, 국방부 군사연구소 연구위원), 이재곤(64/68경제, (주)스탠다드 부회장), 진철문(75/79미술, 한국조형연구소 대표) 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우태주 회장의 연임을 가결했다.

### 81학번 송년 등산 모임

81학번 등산대회 및 송년모임이 구립 10일 경기 포천시 소재 田깎러리 일원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종무(81/85미술, 田깎러리 대표)동문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모임에서 참석 동문들은 후배들의 멘토로서 81학번의 역할, 총동창회에 후배 참여 문제, 학과별 기수별 모임 활성화 방안, 기금 조성 방안 등 동국 발전을 위해 81학번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9면으로 이어짐>

## 임진년은 국운이 달린 해

새해는 임진壬辰년이다. 용의 해라 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모두가 부푼 꿈에 젖어서 원단을 맞는다. 용은 지극히 상서로운 동물이라 올해에는 용의 기운을 받아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나 어쩐지 시국이 하 수상하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숨길 수 없다. 더구나 임진년 하면 으레 떠 오르는 것이 왜란倭亂이다. 즉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인데 1차 침입이 임진년에 있었기에 통칭 임진왜란이라 부른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豊臣秀吉) 군사는 약 20만명. 병력을 9대로 나누어 제1번대가 부산포로 쳐들어 온 것은 1592년 4월 14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봉건지배권을 강화하면서 무력을 키웠다. 도요토미는 오랫동안 싸움에서 얻은 번주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시켜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형세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대륙침략을 획책하게 된다. 그는 조선에게 명명을 치러 갈터이니 길을 터달라는 억지를 부린 끝에 조선을 유린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당시의 조선은 외침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임진년 조선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민생은 고달프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다

조선은 왜의 침략을 받은 선조宣祖 이전부터 이미 나라의 기운이 쇠퇴衰退하여 왔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끊임없는 정쟁이 있었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는 약 50년 동안 무오, 갑자, 기묘, 을사의 4대 사화士禍

를 거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선조 즉위 후 격화된 당쟁은 정치의 정상적인 수행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또 군사적으로는 조선 초기에 확립된 국방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비변사'를 설치했으나 이것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식층은 문약文弱에 빠져 국가의 원기를 잃게 했고, 백성들은 가렴주구에 시달려 살기가 어려웠다. 정치적 혼란, 부실한 국방체제, 비생산적 사회기풍, 빈곤한 백성들의 삶 등 이러한 국가의 병폐들이 결국은 왜란을 불러 들였던 것이다.

비교하긴 좀 안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도 임진년 조선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민생은 고달프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다. 국방태세도 정신적으로 해이되어 있고 경제도 전망이 썩 밝지는 못하다. 게다가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치를 불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다. 딱한 일이다. 이런 처지에 북한은 올해를 강성대국의 해로 잡았다. 안보도 불안하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이제 준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 국민들 자신의 창조적 능력과 불굴의 투지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하나 문제는 지도부다. 4월 11일에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 12월 19일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 할 양대 선거다. 그래서 올 임진년은 국운이 달린 해이다.

국민들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1년이다. 다 같이 자중자애하면서 새해 벽두 나라의 발전을 염원해 보자.

■ 송 재 운

(60/64철학, 동국대 명예교수, 수필가)

## 복지 논쟁과 주인정신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의 정치 판도를 가늠할 키워드를 선택하라면 단연 '복지'가 될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나 보수의 색깔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집권전략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선별적 복지든, 대중적 포퓰리즘이든 무슨 상관일 것인가? 문제는 복지논쟁의 정치적 수사修辭 과잉과 그로 인한 선거결과가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주인'의 공간에 남는 것이 없든 '자신'의 받을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머슴'으로 온 국민을 만들어서야 어떻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가?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IMF 이후 날로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현상과 함께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사회적 통합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서민층의 보호와 빈곤층의 확대를 막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결국 또 다른 그리스의 비극을 잉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건전한 책임의식이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수처작주'의 정신을 주창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주인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인은 '나눌 것을 가진 사람'이고, 머슴은 '받을 것만 가진 사람'이다. '받을 것만 가진 머슴'은 자신만

생각하지만 '나눌 것을 가진 주인'은 나누어줄 사람까지 생각하게 된다.

또한 나눔은 '나누어 줄 능력'에 더하여 '나누어 줄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필자가 '수처작주'와 함께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가사불이家社不二'이다. '내 가정과 사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생각이다. 어디서나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의 안녕을 돌보고 지켜 줄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필자는 '가동불이家東不二', 즉 '내 가정과 동국대는 하나다'를 주장하고 있다. 모교가 제2건학운동으로 우뚝 서고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 되었을 때, 23만 동국인이 진정한 '선진복지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올 선거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수처작주'뿐 아니라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국가(사회)가 하나다'라는 '가국불이家國不二'운동의 계기가 되어 국민 모두가 '머슴의식'을 떨치고 진정한 '주인'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2012년 '흑룡의 해'가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어 정치인, 기업인, 근로자, 주부, 학생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머슴'들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는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이 주는 것만 챙기는' 전근대적 '복지국가'가 아닌 '스스로 나눌 것을 만들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복지창조자'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21세기형 '복지국가'의 모델을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 소망해 본다.

■ 김 오 현

(76/80체교, (주)보경 회장,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

## 신년인사회

### 해동회 90살 회원에 장수패

해동회(회장=박영민, 46/52영문, 국가원로회의의 공동의장)는 지난 1월10일 정오 종각소재 파노라마뷰페에서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동회는 1946년 입학 동기 모임으로 이 자리에서는 금년에 90세가 된 강대원 동문등 2명에게 무병장수패를 전달, 축하했다.

### 수원동문회 신년하례 모임

수원시동문회(회장=김용구, 70/74농경, O.S.E(주)대표이사)는 지난 1월10일 오후6시 호텔캐슬 다이아몬드홀에서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구 회장은 "올 한해도 화합하고 참여하는 수원동문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인사했으며, 행운권 추첨과 답사로 선후배간 우의를 돈독히 했다.

### 한의학과 회장에 김경선 동문(사진)



#### ▲김경선 회장

김경선(82/88한의, 고양한의원 원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했다.

이날 라경찬(80/86한의)동문은 '비염의 임상적 접근'을 주제로 특강했으며, 남상민(79/85, 명성한의의원)동문에게는 총동창회장의 공로패가 주어졌다.

### 성남동문회에 본회 제작 동문회기 전달

성남동문회(회장=고용규, 70/74정의, (주)동우들 대표이사)는 지난 1월16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 부근 신도오리에서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

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성남시동문회기를 제작, 이날 행사에서 고용규 회장에게 전달했다.

### 부산동문회 발전방안 논의

부산동문회(회장=정광훈, 65/69상학, 뉴축복웨딩홀 대표)는 지난 1월16일 오후7시 뉴 축복웨딩홀에서 김상훈(55/59국문, 전 부산일보 사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후배간 융합과 참여를 화두로 부산동창회의 발전적 대안을 논의한 뒤 힘찬 새해 결의를 다졌다.

### 언론정보대학원 신년회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회장=김종수, 98/01출판잡지, 도서출판 한울 대표) 신년회가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17일 오후 7시 시청앞 꺼명도새기집에서 열렸다.

제26대 회장 취임식  
2011 동국인의 밤

# 축제와 감동의 도가니속으로...

## 8백명 모여 '함께하는 동국인 · 약진하는 명문 동국' 확인



본회 제26대 이연택 총동창회장 취임식 겸 '2011 동국인의 밤' 행사가 구립 14일 오후 6시30분 8백여명의 각지 동문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장충동 소재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려 축제와 감동의 장을 만들었다.

제1부 26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연택 회장은 "모교는 우리 동문들의 얼굴이며, 영원히 함께하는 고향중의 고향"이라며 "23만 동문의 무한한 저력을 바탕으로 모든 동문에게는 긍지와 영광을, 후배들에게는 최고의 사회적 평판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 이연택 회장

"모든 동문에게는 긍지와 영광을, 후배들에게는 최고의 사회적 평판을..."

이날 학교법인 이사장 정련 큰스님은 치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잡은 동문들의 역량과 애교심이 학교발전으로 승화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하는 미풍을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희욱 총장은 "제2건학 Re\_Star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동국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동국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축하패 54명-공로패 46명

제2부는 정상영(57/61법학, KCC 명예 회장) 고문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고현정(90/94연영, 탈렌트) 동문에게 '제1회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을 시상한데 이어, 동국을 빛낸 특별상과 취임 및 승진, 각종 수상, 국가고시 합격자에게 축하패, 본회와 지부(회)발전예공이 큰 동문들에게는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전영화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상 수여는 정상영 고문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가운데 시상이 이뤄졌

다. 정상영 고문은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국인이 자랑스롭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인사했다. 정고문은 이날 행사 말미에 고시반 육성 장학기금 1억원을

### 축하 동문

"동국을 빛내는 동국인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오늘의 영광에 보답하겠다."

쾌적해 축제와 감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금년에 첫 제정된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을 받은 고현정 동문은 순금 축하



패와 부상으로 조각품(전종무 동문 제작)을 받고 "동국을 빛내는 동국인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모든 분의 큰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박영민(46/52연문)동문과 최근 경호처장에 취임한 어청수(73/80경행)동문, 조달청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규연(78/81행정)동문에게는 동국을 빛낸 특별상을 수여, 축하했다.

이어 축하패는 김명룡(77/81행정)우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취임·영전 및 당선자 33명, 각종 훈장 및 수상자 9명,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12명에게 수여됐으며, 공로패는 학과, 지역, 직장, 직능별동문회 추천을 받아 임선교(58/63경제, 전 성남동문회장) 동문 등 46명에게 전달했다.

### 지역 동문회장등 건배 제창

### 행사 분위기

축하패·공로패 수여와 만찬·공연·행운권 추첨으로 이어지면서 열기 넘쳐

이날 만찬시간에는 송석구(58/62철학, 사회통합위원장) 고문을 필두로 김진선(71/74행정) 2018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민병덕(74/81경영) 국민은행장, 최규연(78/81행정) 조달청장, 정광훈(65/69상

### 축하패 수여자 명단

◆당선 △윤형두(55/63법학)=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오정석(72/79농학)=경기유통도매업협회 회장 △정우식(88/93철학)=대한불교청년회장 ◆취임 △강석천(72/76경행)=(주)호텔인터불고 대표이사 △김명룡(77/81행정)=우정사업본부장 △김애주(76/81연문)=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계성스님(78/81승가)=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 △황만성(81/85경영)=기업은행 부행장 △이효정(81/89연영)=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중등학교장 △김희영(70/77수학)=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치경(71/75물리)=한광고등학교 교장 △민해(74/78국교)=혜원여자고등학교 교장 △윤창식(74/79국문)=오산중학교 교장 △이덕기(76/83국교)=문창중학교 교장 △박춘구(78/84국사교육)=연서중학교 교장 △이학송(78/82불교)=부산장안중학교 교장 ◆경찰청 △박천화(73/80경행)=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감) △구은수(78/85경행)=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윤철규(78/82경행)=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홍익태(78/85경행)=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 △장전배(98/05일원 경행)=전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 △이금형(99/02행원)=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 △김종양(00/04일원 경행)=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정순도(74/81경행)=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 △강성복(77/84경행)=전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전석중(77/81경행)=경찰청 교통관리관(경무관) △정해룡(78/82경행)=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 △윤종기(79/83경행)=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허영범(79/85경행)=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최현락(99/02일원 경행)=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조현배(07/09일원 경행)=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 △이상식(일원 경행)=경찰청 치안정책관(경무관)

학) 부산동문회장, 류수택(60/67경영) 광주동문회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건배를 제의, 행사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정환민(65/69농학)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공연은 이철구(81/84국사)동문의 라틴음악 '공가'와 칸소네 '눈물속에 피는 꽃',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이경오씨의 '별이여, 사랑이여' 등의 노래와 국내정상급 섹스폰 연주자 김정음씨의 선율이 행사장을 수놓았다.

휘날레인 행운권은 이연택 회장을 비롯 임덕규(56/60법학)고문과 송석환(64/68농경)수석부회장, 서영준(64/68법학) 상임부회장이 추첨에 나서 동문들에게 TV 4대 등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또 지방에서 참석한 동문들과 원로동문들에게는 추첨없이 협찬경품들을 별도로 전달하였다.

# 소통 · 화합의 힘찬 도약 의지 다지다

##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정상영 고문 ... 현장서 고시반에 1억원

###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정상영 고문



법학과 57학번인 정상영 본회 고문은 일찍이 50년대 말 금강스레트공업을 설립, 반세기동안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오늘의 KCC 그룹을 일궈냈다. 정 고문은 기업 활동 틈틈이 모교 고

시반 육성에 남다른 관심으로 갖고 소문없이 신림동에서 공부하고 있던 후배들을 지원해왔으며, 동국발전을 위해서 밝혀진 것만 모교 25억, 총동창회에 8억7천만원 등 33억7천만원을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KCC그룹 명예회장으로 있는 정 고문은 “돈을 벌면 잘 쓸줄도 알아야 된다”는 노블레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동문회 행사때마다 협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5회째 계속되어온 동국인친선골프대회를 금강CC에서 매년 개최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 동국을 빛낸 특별상 3인의 얼굴



박 영 민  
국가 원로회의의장



어 청 수  
청와대 경호처장



최 규 연  
조달청장

###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 고현정 동문



1989년 미스 코리아 선에 뽑히고 나서 모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1990년)한 고 동문은 재학시절 연예계에

데뷔, 선 굵은 연기 활동을 해왔다. 여명의 눈동자(1991), 모래시계(1995), 봄날(2005)등의 드라마와 해변의 여인(2006), 여배우들(2009)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2009년 ‘신덕여왕’에서 미실 역으로 MBC 연기대상 대상, 또 2010년 ‘대물’에서 대통령 서혜립 역으로 SBS 연기대상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2년에는 영화 ‘미쓰 GO’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고 동문은 모교에 연극영화학과 장학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59/63법학) △ 박대혁(59/63생물) △ 윤대섭(59/63경제) △ 최동선(59/63경제) △ 박봉선(60/66경제) △ 양수성(61/65경영) △ 홍성숙(61/65불교) △ 안세영(64/68화학) △ 유병완(64/68상학) △ 정학주(64/72법학) △ 박종화(65/69식공) 윤홍섭(65/72상학) △ 고원방(66/70식공) △ 이정일(66/70응생) △ 이광근(67/74통계) △ 이영균(68/72도공) △ 정관희(68/72통계) △ 박일근(69/73농경) △ 나경미(70/74정의) △ 김승찬(72/76전산) △ 이태경(73/80전산) △ 김문호(75/81경영) △ 문상원(79/85한의) △ 전창학(79/83경영) △ 김종형(81/88경영) △ 전종무(81/85미술) △ 조충미(81/85교육) △ 임귀수(84/88농생) △ 윤재호(85/89정의) △ 김종필(86/90경영) △ 윤광태(87/94관광경영) △ 황경환(87/89교원) △ 김안숙(93/95경원) △ 박재준(99/07안전공학) △ 심규삼(00/01사원) △ 광진스님(01/03불문원) △ 이죽련(02/04사원) △ 양용자(03/05불원) △ 이영인(03/05교원) △ 조일환(05/09불교) △ 고현달(08/09사원) △ 손규석(09/11사원) △ 정옥윤(09/01사원) △ 이강훈(일원 경영졸) △ 지산스님(교원)

(48/56국문)=10만원 △ 박삼선(51/55법학)=10만원 △ 박수철(53/57입학)=10만원 △ 김용정(56/59철학)=10만원 △ 정동진(65/69국문)=10만원 △ 윤일균(67/69행원)=10만원 △ 이영균(68/72도공)=10만원 △ 김진길(72/78행정)=10만원 △ 박종국(73/81경영)=10만원 △ 홍창화(78/82정의)=10만원 △ 서영수(81/82행원)=10만원 △ 최석권(84/88법학)=10만원 △ 오선호(84/88영문)=10만원 △ 성웅스님(91/93불원)=10만원 △ 나채문(99/02산원)=10만원 △ 원행스님(00/02불원)=10만원 △ 이종만(05/09국제통상)=10만원 △ 경주캠퍼스재직동문회(회장 이점원)=10만원 △ 김상종(62/66농경)=5만원 △ 배충남(62/66상학)=5만원 △ 지만호(87/94행원)=5만원 △ 이윤철(88/95경영)=5만원 △ 김영배(51/55국문)=3만원 △ 김재완(92/97인철)=3만원 △ 성각스님(97/99불문원)=3만원 △ 김현택(97/99북한)=3만원 △ 박현우(00/02사원)=3만원 △ 이현준(00/07전기)=3만원 △ 이종복(55/59불교)=2만원 △ 양중모(64/66국문)=2만원 [합계 23,134,780원]

### 행운상품 답지

- TV 4대 등 경품 당첨에 함박웃음
- 지방·원로 동문에게는 별도 선물 전달

### ■ 협찬금 및 물품 내역

◆협찬금=△정상영(57/61법학)=5백만원 △학교법인 이사장 정련스님=금일봉 △김희옥 모교총장=금일봉 △이종찬(64/70정의)=2백만원 △안채란(48/54국문)=1백만원 △전순표(53/57농학)=1백만원 △박종윤(56/59경제)=1백만원 △ 송석환(64/68농경)=1백만원 △서영준(64/68법학)=1백만원 △사회과학대학원(회장:김석만)=1백만원 △부산동문회(회장:정광훈)=50만원 △문화예술대학원(회장:양용호)=50만원 △김영근(46/49문학)=30만원 △도윤스님(54/58사학)=30만원 △노준식(58/62정치)=30만원 △윤부성(61/63생물)=30만원 △김진선(71/74행정)=30만원 △인천동문회(회장:이환섭)=30만원 △윤희현(53/57경제)=214,780 △박응섭(50/52국문)=20만원 △조희영(59/63경영)=20만원 △최용환(64/67농학)=20만원 △법타스님(67/74인철)=20만원 △김용구(70/74농경)=20만원 △경하현성스님(72/73행원)=20만원 △김태현(84/89불교)=20만원 △한대현(89/91경원)=20만원 △하만장(90/92경원)=20만원 △홍성표(00/01사원)=20만원 △최세화

◆협찬물품=△이연택(총동창회장)=LED TV 1대 △김영중(경주캠퍼스 총장)=LED TV 1대 △화랑스님(경주캠퍼스 정각원장)=LED TV 1대 △신영자(롯데 사장) = LED TV 1대 △류수택(광주동문회장)=상품권 20만원 / 화장품 2점 △박태권(정치외교학과동문회장)=건강식품-본초공진환 골드 1세트 △안형모(통계학과동문회 회장)=건강식품-고려은단비타민 10박스 △문황진(불교대학원동문회장)=녹차다기세트 5점, 반상용기 세트 1점 △남기일(상수회 회장)=전자레인지 1점 △동국대학교=데스크 다이어리 500부 △안채란(채란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카렌다 200부 △서정호(엠베서더호텔 회장)=부페권 8매 / 카렌다 100부 △김성재(경주중앙청과 회장)=골 15박스 △김선근(모교 명예교수)=불교사전 5권 △오정석(동원주류 판매 사장)=소주 20박스, 맥주 20박스 △장영길(경주캠퍼스 대외협력본부장)=전기밥솥 1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실=청자수반 5점 △안병준(청학조선호텔 대표이사)=청학조선호텔 숙박권 200매

### ■ 행운권 당첨자

◆TV=△서정원(62/66경제) △이경석(67/71도시공학) △김만호(85/92통계) △허남기(05/09경영) ◆전기밥솥=△양용자(03/05불원) ◆반상기세트=△조충미(81/85교육)

◆훈·포장 △김종규(58/64경제)=은관 문화훈장 △이인정(65/72상학)=석탑 산업훈장 △법타스님(67/74인철)=은관 문화훈장 / 세계평화대회 평화상 △고담스님(01/03불문원)=국민포장 수상 - 국민추천포상제 ◆수상 △김선근(65/69인철)=대한불교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 원력상 △김오현(76/80체교)=한국창업경영자대상 △김승욱(79/83건축)=제1회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대상 △양선희(02/04불교미술)=제26회 대한민국 불교 미술대전 대상 △배영섭(05/09체교)=2011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신인상 ◆사법시험 합격=△최석봉(94/01법학)

△김보경(01/07법학) △장수영(/11법학) △박윤희(법학4년) △양병렬(법학4년) ◆입법5급 합격=△최성민(02/08경제) ◆행정5급 합격=△이상운(98/04회계,재경직) △김홍원(99/07경영,재경직) △홍준식(01/10행정,일반행정직) △김수연(05/경영,검찰사무직) △허남기(05/경영,일반행정직) ◆변리사시험 합격=강현욱(01/05전자)

### ■ 공로패 수여자 명단

△김성재(58/63정치) △임선교(58/63경제) △김교근(59/65경영) △김중서

**국민훈장 모란장**  
조 규 동문  
**은관 문화훈장**  
김종규 동문  
**은관 문화훈장**  
법타스님



▲ 조 규 동문



▲ 김종규 동문



▲ 법타스님

■ 조규(75/77경원, 외교양행(주) 대표이사)동문이 구립 27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조 동문은 각종 강연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통일 여론 수렴 및 정책건의를 활발히 하였다.

■ 김종규(58/64경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동문이 지난해 10월15일 강릉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

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 법타스님(67/74인철, 모교 정각원장)이 문화재청에서 은관 문화훈장, 세계평화재단(통일교)으로 부터 세계평화대회 평화상을 수상했다.

법타스님은 북한 신계사 복원등 문화재의 보존·관리·후원과 종교 평화에 힘써 왔다.

## 경찰청 재직동문 다수 승진

지난해 하반기 경찰청 인사에서 많은 동문들이 승진, 또는 영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 ■ 치안감급(2011.11.23)

- △홍익태(78/85경행)=경찰청 생활안전국장
- △신용선(73/77경행)=경찰청 경비국장
- △김종양(00/04대원 경행)=경찰청 외사국장
- △구은수(78/85경행)=중앙경찰학교장
- △윤철규(78/82경행)=서울경찰청 차장
- △김인택(75/79경행)=대구경찰청장
- △박천화(73/80경행)=인천경찰청장
- △이금형(99/02행원)=광주경찰청장
- △이상원(77/81경행)=대전경찰청장
- △임승택(74/78경행)=경기경찰청 제2청장
- △이성환(75/79경행)=충북경찰청장
- △장전배(98/05대학원 경행)=전북경찰청장

### ■ 경무관급(2011.11.30)

- △전석종(77/81경행)=경찰청 교통관리관
- △이상식(대학원경행)=경찰청 치안정책관
- △정순도(74/81경행)=서울청 경무부장
- △최현락(99/02대원경행)=서울청 수사부장
- △윤종기(79/83경행)=서울청 경비부장
- △조현배(07/09대원경행)=서울청 정보관리부장
- △정해룡(78/82경행)=경기청 2부장
- △허영범(79/85경행)=충남청 차장
- △강성복(77/84경행)=전남청 차장

### ■ 총경급(2011.12.22)

- △최관호(84/91경행)=경찰청 경무과장
- △이은정(84/88경행)=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이재열(79/86경행)=경찰청 형사과장
- △윤승영(대학원)=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 △전병용(77/84경행)=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 △이문수(80/84경행)=경찰청교육원 교무과장
- △김시택(95/97행원)=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
- △김상운(78/85경행)=서울청 인사교육과장
- △김석돈(02/04행원)=서울청 도시고속운영실장
- △남택화(79/83경행)=서울청 보안1과장

- △이봉행(00/03대원경행)=서울청 외사과장
- △최해영(79/83경행)=서울 서초경찰서장
- △엄용홍(75/82경행)=대구청 경비교통과장
- △안중익(77/81경행)=인천청 보안과장
- △구본걸(74/81경행)=인천청 국제공항경찰대장
- △우형호(75/82경행)=광주 남부경찰서장
- △최호열(79/83경행)=대전청 홍보담당관
- △김관태(74/81경행)=대전청 청사경비대장
- △신동호(74/81경행)=경기청 제3부 외사과장
- △이재영(74/81경행)=경기청 제2청 수사과장
- △유현철(78/82경행)=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 △박외병(01/04행원)=경기 안양동안경찰서장
- △이문수(80/87경행)=경기 광주경찰서장
- △황성모(74/78경행)=경기 여주경찰서장
- △정은식(00/02행원)=경기 구리경찰서장
- △김성권(76/83경행)=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 △신상석(78/85경행)=강원청 정보통신담당관
- △임정섭(77/83법학)=강원청 생활안전과장
- △이재술(77/85행정)=강원 인제경찰서장
- △나유인(77/81경행)=전북청 생활안전과장
- △조용식(82/86경행)=전북 익산경찰서장
- △이승길(78/85경행)=전북 임실경찰서장
- △김명호(77/84경행)=전남청 경비교통과장
- △심덕보(97/99사원)=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 △이준형(대학원)=서울청 치안지도관
- △박근주(99/05행원)=서울청 치안지도관
- △윤창수(76/83경행)=경남청 치안지도관
- △전진선(79/86경행)=경찰청 경무과(교육)
- △강신걸(81/87경행)=경찰청 경무과(교육)
- △김소년(84/91경행)=경찰청 경무과(교육)
- △박형길(81/88경행)=서울청 경무과(교육)
- △양두환(75/79경행)=부산청 경무과(교육)
- △오성환(74/81경행)=경기청 경무과(교육)
- △박지영(06/10대원경행)=경기청 경무과(교육)
- △최성철(72/76경행)=인천청 경무과(대기)
- △박종수(03/05행원)=경기청 경무과(대기)
- △윤동길(73/80경행)=경기청 경무과(대기)
- △윤대표(72/76경행)=충북청 경무과(대기)

## 기업체 임원

### 삼성그룹 부회장 승진



정연주(69/73경영)동문이 2012년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976년 삼성물산에서 직장생활을 시작, 줄곧 삼성에서 일해 온 정통 '삼성맨'이다.

### 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배경태(77/84경영)동문이 구립 13일 발표된 삼성그룹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최우수(77/81경제) 동문이 구립 13일의 삼성그룹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부영주택 호남본부사장 취임



류수택(60/67경영) 동문이 지난해 11월10일 (주)부영주택 호남본부 사장에 취임했다. 류 동문은 본회 광주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은행 부행장 승진



심재오(78/85경제) 동문이 구립 23일 발표된 국민은행 인사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를 마쳤으며, 1985년 입행해 압구정동 PB센터장, WM(Wealth Management)본부장 등을 맡아 일해 왔다.

### 현대차그룹 부사장 승진

한성권(80/84경영)동문이 현대차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KOBACO 전무이사 부임

김종현(75/82행정)동문이 지난해 10월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전무이사로 부임했다.

### STX대련조선 부사장 승진



허혁(74/78정의)동문이 구립 22일의 STX그룹 인사에서 STX대련조선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80년 쌍용으로 입사해 2008년부터 STX대련조선 재무부문장(전무)으로 일해 왔다.

### 보광헤미리마트 총괄부사장 승진

박재구(76/83식품)동문이 구립 26일 발표된 2012년 정기인사에서 (주)보광헤미리마트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삼량학원 이사장 취임



계성스님(78/81승가, 유가사 주지)이 구립 8일 인천 강화에 위치한 삼량고등학교 설립재단인 학교법인 삼량학원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 솔로몬저축은행장 취임

정일대(79/83회계)동문이 솔로몬저축은행장에 취임했다.

###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에 취임



이효정(81/89연영,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탈렌트)동문이 지난해 11월1일 제2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 대림비앤코 부사장 승진



강태식(81/88회계)동문이 지난 1월1일 대림비앤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승진

윤학섭(84/92경영)동문이 국내 Big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취임

지석규(84/88전자)동문이 지난해 10월6일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취임했다.

###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장 부임

박광명(86/93국민운리)동문이 지난해 10월10일자로 강원랜드 중독관리(KLACC)센터장에 부임했다.

## 취임 · 승진

### 청와대 춘추관장 취임



이종현(86/90국문)동문이 구립 12월2일 청와대 춘추관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서울시장 정무특보와 공보특보, 서울시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신호중(76/83통계)동문이 지난 8월16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보화 담당관(3급)으로 승진했다.

### 감사원 부이사관 승진

박재신(77/81공경)동문이 지난해 9월1일 감사원 감찰정보단 제2과 과장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 과장으로 영전했다.

경상대 사무국장 부임

윤용식(77/84국사교육)동문이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신입 사무국장으로 지난해 11월21일 부임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영전

전운배(79/86경제)동문은 8월 22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영전

김후곤(84/91법학)동문이 지난해 법무부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과장으로 영전했다. 창원검찰청 거창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장으로

임진우(77/83경행)동문이 지난 1월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대전 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



각종 수상

강원도민일보 발해학술상 수상

임상선(79/86국사교육)동문이 강원도민일보가 발해사 연구 및 저술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제정한 제3회 발해학술상을 지난해 10월8일 받았다.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김선근(65/69인철, 모교 명예 교수)동문이 1969년 군종법사 임관 후 1983년까지 군 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영인상 수상

김오현(76/80체교, 에코아텍 회장)동문이 구립 19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 기업 선정식'에서 '지식경영인상'을 받았다.

미국 영화감독조합 학생영화상

김보라 동문(00/ 영화)동문이 감독한 단편 영화 '리코더 시험'이 구립 1일 미국 영화감독조합(DGA)이 시상하는 '학생영화상'을 수상했다. 미국 영화감독조합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TV등을 대상으로 해



마다 영화상과 학생영화연출상을 시상한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

양선희(02/04불교미술)동문이 지난해 11월29일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 회화 작품 '신중도'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리즈 신인왕 수상

배영섭(05/09체교,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중견수)동문이 구립 9일 '2011 스포츠 토토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생애 한번 뿐인 신인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행사 · 활동

대한부동산학회 창립기념 행사

오진모(57/61법학, 한국관광개발연구원장,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동문은 지난해 10월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부동산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

윤천영(59/66농학,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동문은 지난해 11월23일 과천 경마공원 LG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2천여 선도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했다.



“향기로운 술 이야기”전시회

김영순(65/69화학, 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지난 10월28일 북촌문화센터에서 '제9회 향기로운 술 이야기' 전시회를 가졌다. 여자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 동문은 현재 모교에서 '우리 술 빛기와 발효이야기'를 주제로 특강 중이다.



제20회 서민대상 시상식

최운섭(68/72수학, 한국서민연합회 대표)동문은 지난해 12월7일 아카시아호텔에서 '제20회 서민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산악인 박영석동문 우리 곁을 떠나다

지난해 10월18일 실종...영결식 엄수

-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세계 최단기간 등정
-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



지난해 10월 18일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 14개 가운데 하나인 안나푸르나(8,091m) 남벽 등반중 실종된 세계적 산악인 박영석(83/91체교) 동문의 영결식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산악인의 장'으로 엄수됐다.

“산악인은 산으로 가야 산악인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생전의 육성이 대형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진행된 영결식에서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정(65/72상학)동문은 조사(弔辭)에서 “박영석 대장과 강기석·신동민 대원이 추구한 도전과 개척 정신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결식이 끝난뒤 동국산악회원 등 동문과 모교 교직원들은 박 동문의 영정을 들고 모교로 이동해 노제를 지냈으며, 이에 앞서 실종 소식을 접한 모교는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정

각원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객을 맞았다.

박 동문은 △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세계 최단기간 등정 △ 세계최초 6개월간 최다등정-히말라야 8,000m급 5개봉 등정 △ 세계최초 1년간 히말라야 8,000m 급 최다등정 달성(기네스북 등재) △ 아시아 최초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 세계 최단기간 무보급 남극점 도달 △ 북극점 도달 △ 인류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 (기네스북등재)

“산악인은 산으로 가야 산악인이죠. 도시에 있는 산악인은 산악인이 아니라고 봐요. 야성을 잃은 호랑이지요. 들판에서 뛰며 사냥해야 호랑이가 호랑이죠. 나는 죽는 그날까지 탐험할 것입니다”

△ 단일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횡단 등반 성공 △ 2009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 신 루트 개척 등 산악등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겼다.

한편 본회는 이연택 회장과 김오현 상임부회장, 전영화 사무총장, 신관호 사무국장과 박 동문과 친분이 있는 동문들이 다수 참석, 조문했다.

신춘문예에서 동국문학 빛나다

평론 · 시나리오 · 소설 등 골고루



▲ 신새별 동문



▲ 전호성 동문



▲ 정경운 동문



▲ 황경란 동문

2012년 1월1일자로 발표된 일간지 신춘문예에 4명이 당선됐다. 영예의 주인공은 문화일보 평론부문 신새별(국문), 동아일보 시나리오부문 '금루곡'의 전호성(대학원 국문), 한국일보 소설부문 '고열'의 정경운(문예창작)동문 등이다. 또 황경란(문원 문예창작)동문은 농민신문에 단편소설 '그날 이후로'가 당선되었다.

문화일보 평론부문 신새별 동문 평론으로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신새별 동문은 “문학을 공부하는 내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어쩌면 글쓰기로 이 길고 긴 항해의 궤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앞으로 튼실한 부표의 사슬을 엮어가면서, 누군가의 항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시나리오 전호성 동문 시나리오 '금루곡'으로 동아일보 신

춘문예에 당선된 전호성 동문은 “시나리오는 설계도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설계도의 그림대로 건축물이 올라가듯,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4만7000여 개의 글자들이 빛을 타고 움직이고 공기를 통해 올라오는 날을 상상해 본다” 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소설부문 정경운 동문 소설 '고열'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정경운 동문은 “소설을 쓰기 위해 일부러 모티브를 잡아서 쓰는 것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관찰하고 느낀 것을 떠올려 써왔다”며 “당선작 '고열'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아이가 열병으로 숨진 뒤 아이의 물건을 버리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단편소설 황경란 동문 황경란 동문은 단편소설 '그날 이후로'로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남산미디어포럼 창립기념 강연회**



하동근(00/03언원, 남산미디어포럼 회장) 동문은 지난해 10월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초빙해 '중편출범과 미디어산업발전 방향'을 주제로 남산미디어포럼 창립기념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제5대 '국새' 제작위원장 활약**



이서형(67/71철학,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동문이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소관 제5대 국새(육새) 제작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지난해 10월 국새 제작을 완료했다.

**세계스포츠법학회 부회장 연임**



연기영(71/75법학, 모교 법학과 교수, 아시아스포츠법학회 회장) 동문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스포츠법학자대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에 재선출되었다.

**계룡산 자은사 극락전 점안식**



이용훈(72/77농생, 의료법인 청양훈병원 이사장)동문은 지난해 11월26일 계룡산 국사봉 자은사 극락전 점안식을 가졌다.

**불암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일면스님(75/79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 지난해 10월8일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2011 생명나눔의 날 '불암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노인 복지기금 마련 바자회를 가졌다.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장 취임**



김성한(78/82체교, 전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감독)동문이 구립 9일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대전야구클리닉센터 개설**

이중하(83/87체교)동문이 지난해 11월26일 대전시 유천동 대전서부터미널 3층에 '야구클리닉센터'를 개설했다.

**안양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부임**

임 준(81/85체교)동문이 안양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부임했다.

**출판 · 전시회**

**'공감의 정치를 꿈꾸며' 출판기념회**



구상찬(77/81체교, 국회의원)동문이 정치이야기를 담은 '공감의 정치를 꿈꾸며'의 출판기념회를 구립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진심이면 통합니다' 출판기념회**



이정현(78/85정의, 국회의원)동문이 자서전 '진심이면 통합니다'를 내고 지난해 10월27일 광주광역시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금 만날까요?' 북 콘서트**



최재성(84/93불교, 국회의원)동문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한 국민 소통의 기록인 '지금 만날까요?' 북 콘서트 행사를 지난해 12월10일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가졌다.

**"남이흥의 비장한 순국" 펴내**



남균우(58/63법학, 소설가, 교육학 박사)동문이 최근 역사소설 '남이흥의 비장한 순국-정묘호란의 적장 아민도 머리 숙여 추모했다'를 펴냈다.

**시집 '행복을 생각하면' 출판기념회**



우태주(66/70경영,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동문이 시집 '행복을 생각하면' 출판기념회를 지난 1월11일 용인 수지농협 2층 강당에서 열었다.

**'김석기의 길' 출판기념회**



김석기(85/89행원, 전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동문은 구립 1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김석기의 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미술 개인전 열어**



곽동해(85/89미술, 전 모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동문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주일간 평창동 반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결 혼**

- ▲김형섭(65/69경영, 전 군인공제회 전무)=10월9일 차녀 결혼
- ▲주선웅(59/63불교, 청용사 회주)=10월23일 장녀 효정양 결혼
- ▲오택원(73/77국문, 동대부고 교장)=11월5일 아들 두식군 결혼
- ▲강영규(70/77경영, (주)씨큐어넷 대표이사)=11월5일 막내 지선양 결혼
- ▲서재열(67/71위생공학, 한립철강(주) 대표이사)=10월15일 아들 근배군 결혼
- ▲허남윤(97/98사원, SM패션(주) 대표이사)=10월15일 차녀 수현양 결혼
- ▲이성규(74/81경영, 전 서울경찰청장)=11월5일 장녀 선정양 결혼
- ▲이승석(05/11법학, 새전북신문 기자)=11월19일 본인 결혼
- ▲류복수(95/96사원, (주)후니드 영남지역본부장)=10월23일 장남 경협군 결혼
- ▲차문희(72/79정의, 경남기업(주) 상임감사)=11월20일 장남 승원군 결혼
- ▲고정훈(05/07화학, 하은영(02/07화학)=11월5일 동문부부 탄생(결혼)
- ▲부충식(63/70경제, 동조산업(주) 회장)=11월19일 장남 좌영군 결혼
- ▲한대현(89/91경원, (주)대경바스컴 대표이사)=12월18일 장남 승민군 결혼
- ▲이순우(60/64경제, 동화유치원 설립자)=12월3일 장녀 윤희양 결혼
- ▲황규훈(66/73경영, 본회 상임이사)=12월 10일 차남 준혁군 결혼
- ▲김철규(84/86경원, 백상 대표)=12월 18일 막내 종열군 결혼
- ▲지만호(87/94행원, 오늘의한국 회장)=12월17일 장남 승욱군 결혼
- ▲이영균(68/72도시공학, 우향기획 대표, 본회 부회장)=12월17일 차남 용

- 석군 결혼
- ▲박흥서(68/72통계, (주)정방시스템 회장)=12월27일 재완군 결혼
- ▲서영석(59/64경제)=10월 22일 장남 결혼
- ▲문준수(69/74인철, 서초동문회장)=10월29일 삼녀 결혼
- ▲황래열(71/78체교, 재경평창군민회장)=11월20일 차녀 결혼
- ▲김윤종(66/73정의, (주)신성건축디자인 사장)=11월26일 장남 결혼
- ▲변학환(64/68영문, 신흥대학 부총장)=11월26일 장녀 결혼
- ▲이상수(68/72경영, 국제문제연구소)=12월4일 장남 결혼
- ▲정동근(79/86전자)=12월17일 장남 결혼
- ▲고기복(93/98법학, 청와대 행정관)=12월17일 본인 결혼
- ▲신흥식(67/71농학, 신한재활용품 회장)=12월17일 차남 결혼

**부 고**

- ▲허 열(65/72경제)=10월25일 본인 별세
- ▲황인원(81/89국문, 중국동문회장)=10월27일 부친상
- ▲김성수(66/70경영, 대한적십자사)=11월2일 부인상
- ▲김흥찬(57/63법학)=11월2일 본인 별세
- ▲나동연(80/84무역, 경남 양산시장)=11월3일 빙모상
- ▲김동성(73/81정의, (주)퍼스널코리아 사장)=11월4일 빙모상
- ▲황재주(/42불교, 전 충남도교육감)=11월7일 본인 별세.
- ▲최상철(64/71경영, 파인로지스틱(주) 대표이사)=11월10일 모친상
- ▲김덕상(77/81교육, 리더스 러닝 대표)=11월20일 모친상
- ▲김보현(74/78불교, 모교 행정학과 교수)=11월19일 본인 별세
- ▲김영윤(76/83정의, KB금융지주 상무)=12월2일 부친상
- ▲박용균(79/83토목)=12월13일 본인 별세
- ▲김희수(00/01사원,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총무국장)=12월17일 모친상
- ▲라동영(59/63불교, 전 경기대 겸임교수)=12월17일 부인상
- ▲안형모(75/82통계, 해상약품(주) 사장)=12월22일 부친상
- ▲박정준(91/93행원, 세종화랑 대표)=12월22일 모친상
- ▲홍화순(66/68정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12월30일 본인 별세

**동국 의료원에서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으세요.**

이제는 양·한방 협진·최첨단 시설·최고 교수 및 의료진을 갖춘 모교 동국 의료원에서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모교 의료원 MOU체결을 통해 동창회비 납부자에 한해 동국의료원 산하 병원 진료 시에 의료비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양방병원	한방병원	종합검진	장례식장	기타
본인부담액	10%	10%	20%	별도	·외래 및 입원진료비 ·선택진료비 포함 ·치과진료비 포함 ·장례식장 이용시 10% 할인
장례식장 이용 시 할인 혜택	·기본 혜택 - 시설(빈소 및 안치료)이용료의 10% 할인 + 영결식장 이용, 관내운구, 입관실 사용, 의료폐기물처리 등 제공 + 장의차량 10% 할인 ·장례토탈서비스 이용 시에 혜택 - 동국원성형 서비스 이용 시에(280만원→250만원) 30만원 할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1년 10월 11일~ 2012년 1월 16일 접수분>

고문 분담금

부회장 회비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권노갑 (49/53경제) 고문 100만원



김희욱 (68/72법학) 고문 100만원



박준형 (57/63경제) 고문 100만원



광사님 (66/70불교) 부회장 100만원



권경섭 (58/64국문) 부회장 100만원



김대욱 (65/74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동진 (64/68행정) 부회장 100만원



김선근 (65/69인철) 부회장 100만원



김중수 (98/01인원) 부회장 100만원



김창규 (80/84법학) 부회장 100만원



김충남 (66/70행정) 부회장 100만원



라동영 (59/63불교) 부회장 100만원



박동열 (73/78행정) 부회장 100만원



박연백 (67/71행정) 부회장 100만원



배시영 (58/63경제) 부회장 100만원



범하스님 (73/78승가) 부회장 100만원



보광스님 (71/75불교) 부회장 100만원



성각스님 (97/99문원) 부회장 100만원



신동수 (71/75경영) 부회장 100만원



안형모 (75/82통계) 부회장 100만원



여익구 (67/94사학) 부회장 100만원



유병완 (64/68상학) 부회장 100만원



윤성열 (59/63상학) 부회장 100만원



윤종기 (79/83경영) 부회장 100만원



윤태경 (71/76국문) 부회장 100만원



이인정 (65/72상학) 부회장 100만원



장민수 (72/77농경) 부회장 100만원



장용순 (02/04국제통상) 부회장 100만원



전영화 (65/69경영) 부회장 100만원



정병국 (70/76철학) 부회장 100만원



정순도 (74/81경영) 부회장 100만원



조규 (75/77경영) 부회장 100만원



조일성 (58/66국문) 부회장 100만원



지원스님 (76/83선학) 부회장 100만원



현보스님 (72/76승가) 부회장 100만원



형중호 (56/61법학) 부회장 100만원



홍파스님 (63/67불교) 부회장 100만원

고문 분담금

- ▲김희형(56/60정치) 20
- ▲송석구(58/62철학) 50
- ▲현해스님(64/68불교) 50

지도위원 회비

- ▲권영수(58/64법학) 30
- ▲박영민(46/52영문) 30
- ▲백영철(57/62법학) 30
- ▲송재운(60/64철학) 30
- ▲신윤표(61/65행정) 30
- ▲오진모(57/61법학) 30
- ▲윤형두(55/63법학) 30
- ▲이석용(54/58정치) 30
- ▲조재호(61/65불교) 30
- ▲최은식(57/61경제) 30

부회장 회비

- ▲남상민(79/85한외) 2
- ▲오창환(64/67경영) 10
- ▲장영길(72/76국문) 50

상임이사 회비

- ▲강성복(77/84경영) 20
- ▲강성운(63/67행정) 20
- ▲김문기(67/71인철) 20
- ▲김봉주(76/78행정) 20
- ▲김상규(69/73경영) 20
- ▲김석희(57/63법학) 20
- ▲김선중(74/78체육) 20
- ▲김완식(64/71농학) 20
- ▲김재웅(65/69경영) 20
- ▲김정호(95/96사원) 20
- ▲김지형(77/94불교) 20

- ▲김태원(72/77체육) 20
- ▲김학수(65/72경영) 20
- ▲김형섭(65/69경영) 20
- ▲남정현(81/83행정) 20
- ▲노창현(66/73농학) 20
- ▲박대혁(59/63생물) 20
- ▲박삼선(51/55법학) 20
- ▲박상기(67/74수학) 20
- ▲박성훈(69/73경영) 20
- ▲박승중(76/82인철) 20
- ▲박영길(62/64법학) 20
- ▲박종훈(69/76정치) 20
- ▲박진렬(82/88한외) 20
- ▲서석구(56/63법학) 20
- ▲성용길(60/64화학) 20
- ▲심재익(59/64농학) 20
- ▲안중익(77/81경영) 10
- ▲양병호(60/64영문) 20
- ▲양채열(68/72법학) 20
- ▲어재식(68/75상학) 20
- ▲윤영훈(90/98산공) 20
- ▲이계문(80/84공업경영) 20
- ▲이동우(56/61법학) 20
- ▲이명선(67/74농학) 20
- ▲이영안(65/69경영) 20
- ▲이우점(73/77정치) 20
- ▲이원호(89/99사회) 20
- ▲이재환(98/99사원) 20
- ▲이현호(66/70법학) 20
- ▲임창수(95/96사원) 20
- ▲장두수(72/77국문) 20
- ▲장승모(75/77경영) 20
- ▲정병립(84/86행정) 20
- ▲정재기(64/68정치) 20
- ▲조영구(69/76사교) 20
- ▲조운오(94/98경영) 20
- ▲지만호(87/94행정) 20
- ▲진각스님(88/92통교로탈) 20

- ▲최정훈(74/78경영) 10
- ▲하동우(76/80전산) 20
- ▲한세기(61/67행정) 20
- ▲홍진수(98/00경영) 20
- ▲황덕규(77/85경영) 3
- ▲황래열(71/78체육) 20

이사 회비

- ▲곽노성(69/77전자) 10
- ▲권오윤(81/85정치) 10
- ▲권희경(92/94경영) 10
- ▲김경숙(77/81가교) 10
- ▲김경자(81/85영문) 10
- ▲김만석(65/72화학) 10
- ▲김명길(70/74공업경영) 10
- ▲김성용(73/77경영) 10
- ▲김성지(84/91전산) 10
- ▲김영석(87/91법학) 10
- ▲김영필(86/93정치) 10
- ▲김영환(71/75정치) 10
- ▲김인종(77/81회계) 10
- ▲김인환(84/90법학) 10
- ▲김정만(63/67정치) 10
- ▲김주자(60/65철학) 10
- ▲김현두(82/86경영) 10
- ▲김후곤(84/91법학) 10
- ▲무염스님(92/94불원) 10
- ▲박두영(84/88농경) 10
- ▲박주현(89/96경영) 10
- ▲박화영(72/76경영) 10
- ▲백인석(83/90국문) 10
- ▲서재식(80/86전산) 10
- ▲서정원(62/66경제) 10
- ▲선우명자(66/69사학) 10
- ▲신만근(63/70경영) 10
- ▲안정호(86/90경영) 10
- ▲오병진(84/88건공) 10

일반 회비

- ▲강석일(95/02중문) 2
- ▲강중식(57/61수학) 2
- ▲강진영(87/94토공) 2
- ▲고영수(03/05경영) 2
- ▲고방사 2
- ▲고정훈(05/07화학) 10
- ▲공영대(78/82화학) 2
- ▲곽노문(90/92선학) 2
- ▲구윤관(74/82회계) 2
- ▲구자면(84/88경영) 2
- ▲권대성(65/72법학) 2
- ▲권도형(84/91일문) 2
- ▲권오춘(59/61영문) 2
- ▲권태범(70/74수교) 2
- ▲극락암 2

- ▲금륜정사 2
- ▲금용사 2
- ▲기립사 2
- ▲기인종(69/73경제) 2
- ▲김승진(85/89지교) 2
- ▲김경선(97/01세무회계) 2
- ▲김광덕(71/79영문) 2
- ▲김광득(73/80경제) 2
- ▲김광수(02/04항공) 2
- ▲김기성(67/74식공) 2
- ▲김대석(91/97농경) 2
- ▲김대성(75/82통계) 2
- ▲김덕일(82/89국문) 2
- ▲김동규(83/87경영) 2
- ▲김동규(74/81정치) 2
- ▲김동민(82/86경영) 2
- ▲김동필(56/58사학) 2
- ▲김만두(58/64정치) 2
- ▲김명호(61/67식공) 2
- ▲김명희 2
- ▲김민섭(00/08중문) 2
- ▲김복남(55/60경제) 2
- ▲김봉경(86/92경영) 2
- ▲김봉수(64/68통계) 2
- ▲김상복(82/87경영) 2
- ▲김상욱 2
- ▲김성규 2
- ▲김성근 2
- ▲김세훈(72/76전산) 10
- ▲김수년(76/83통계) 2
- ▲김순태(49/52경제) 2
- ▲김승관(80/87경영) 2
- ▲김연호(64/68경영) 2
- ▲김영배(51/55국문) 2
- ▲김영하 2
- ▲김영호(79/83무역) 2
- ▲김영호 2
- ▲김영화(63/67경영) 2
- ▲김용기(61/67화학) 2
- ▲김용범(65/75통계) 2
- ▲김용환(55/59생물) 2
- ▲김우주(79/86화학) 2
- ▲김유익(67/74사학) 2
- ▲김익수(69/73건축공학) 2
- ▲김인숙(86/90무역) 2
- ▲김재웅(65/69영문) 2
- ▲김재현(87/94경영) 2
- ▲김정례(83/87교육) 2

- ▲김종률(00/08통계) 2
- ▲김종삼(69/77행정) 2
- ▲김주영(07/ 일원) 2
- ▲김준수(85/91식공) 2
- ▲김준우(88/95건공) 2
- ▲김철수(73/80경제) 2
- ▲김현택(97/99북한) 2
- ▲김현호(56/60영문) 2
- ▲김환식(78/82토공) 2
- ▲김효수(83/90경제) 2
- ▲김홍성(64/71인철) 2
- ▲김희수(79/83전산) 2
- ▲나병인(82/86사학) 2
- ▲남병국(61/64법학) 2
- ▲남윤희(56/61국문) 2
- ▲남은우(90/97산공) 2
- ▲내원사 2
- ▲노창희(65/69법학) 2
- ▲류근정(05/07불교) 2
- ▲류인수(80/88국교) 2
- ▲류혜경(96/01경영) 2
- ▲류혜숙(72/76사교) 2
- ▲류호룡(65/73행정) 2
- ▲만기사 2
- ▲문대용(91/98회계) 2
- ▲문세현(56/60국문) 2
- ▲민세현(79/85회계) 2
- ▲민창동(77/79일원) 2
- ▲박광순(64/71정치) 2
- ▲박광국(60/64경제) 2
- ▲박동훈(84/88회계) 2
- ▲박성경(98/06경영) 2
- ▲박성민(75/82전자) 2
- ▲박영길(62/66화학) 2
- ▲박영현(60/64영문) 2
- ▲박재호(83/91생생) 2
- ▲박정민(79/83불교미술) 2
- ▲박정희(61/68언극) 2
- ▲박주화(68/72응생) 2
- ▲박준호(83/87회계) 2
- ▲박진석(96/04멀티공) 2
- ▲박진숙(72/76가교) 2
- ▲박창규(87/91법학) 2
- ▲박태석(93/00미술) 2
- ▲박태순(81/85수교) 2
- ▲박태원(65/69국문) 2

- ▲박혜련(80/84화학) 2
- ▲박효원(77/84경제) 2
- ▲반용사 2
- ▲배동윤(81/85경영) 2
- ▲백봉철(77/81회계) 2
- ▲백승운(87/91경영) 2
- ▲백운주(99/01체교) 2
- ▲변종근(60/64법학) 2
- ▲보광사 2
- ▲보광사 2
- ▲보문사 2
- ▲보천사 2
- ▲불광사 2
- ▲삼성암 2
- ▲상용환(73/80수학) 2
- ▲서영석(59/64경제) 10
- ▲선흥사 2
- ▲성산영(57/61사학) 2
- ▲성춘광(01/03행정) 2
- ▲손규현(85/87경영) 2
- ▲손병성(80/87화학) 2
- ▲손창학(81/88건공) 2
- ▲송기봉(74/78국교) 2
- ▲송용섭(84/90정치) 2
- ▲송주호(97/99일원) 2
- ▲수미정사 2
- ▲수월암 2
- ▲신경애(81/85영문) 2
- ▲신만주(81/85경영) 2
- ▲신문식(76/80사교) 2
- ▲심성희(93/95국문) 2
- ▲안준근(86/90무역) 2
- ▲안효선(72/77국교) 2
- ▲연완길(64/71행정) 2
- ▲오국근(55/58영문) 2
- ▲오윤록(85/92행정) 2
- ▲오유희(64/69법학) 2
- ▲오정훈(99/03기공) 2
- ▲오진석(97/05경제) 2
- ▲오희승(92/96영문) 2
- ▲우세환(79/83도시행정) 2
- ▲운암사 2
- ▲원치선(95/03경영) 2
- ▲유경철(98/01전자) 2
- ▲유영근(69/92경영) 2
- ▲유원영(89/93경영) 2
- ▲유재천(56/60경제) 2
- ▲유지남(70/73농학) 2

- ▲유지선 2
- ▲유지훈(77/83행정) 2
- ▲유혜자(62/64국문) 2
- ▲윤성철(77/84회계) 2
- ▲윤애영(92/96회계) 5
- ▲윤영길(61/65상학) 2
- ▲윤영조(92/96체교) 2
- ▲윤중환(76/83전자) 2
- ▲윤진웅(66/70수학) 2
- ▲윤철주(59/64정치) 2
- ▲윤해진(70/79가공) 2
- ▲은적사 2
- ▲은혜사 2
- ▲이경자(69/71무역) 2
- ▲이경찬(61/65법학) 2
- ▲이관우(70/74통계) 2
- ▲이광원(76/80토공) 2
- ▲이규석(84/92회계) 2
- ▲이규원 2
- ▲이규현(59/65정치) 2
- ▲이기출(81/87경영) 2
- ▲이동원(90/94경영) 2
- ▲이문영(98/02아시아) 2
- ▲이범주(78/85식공) 2
- ▲이상봉(57/64사학) 2
- ▲이상운 2
- ▲이상주(76/82사교) 2
- ▲이성민(92/99전자) 2
- ▲이성용(83/87전산) 2
- ▲이성원(80/86공업경영) 2
- ▲이승직(71/78경제) 2
- ▲이승헌(59/63정치) 2
- ▲이시우(61/03정치) 2
- ▲이영재(81/88법학) 2
- ▲이영훈(64/68경제) 2
- ▲이용상(96/98문원) 2
- ▲이용재(65/69행정) 2
- ▲이욱용(63/69경제) 2
- ▲이운재(90/97불교) 2
- ▲이인수(76/81경제) 2
- ▲이장환(69/73무역) 2
- ▲이재연(88/96연영) 2
- ▲이재창(51/55경제) 2
- ▲이재형(79/84인철) 2
- ▲이정진(81/87건공) 2
- ▲이정호(74/81경영) 2
- ▲이정희(91/95행정) 2
- ▲이종수(87/91정치) 2

장학기금



정상영 (57/61법학) 고문 10,000만원 | 이화일 (61/65상학) 부회장 10,000만원 | 안채란 (48/54국문) 부회장 1,000만원 | 형종호 (56/61법학) 부회장 1,000만원 | 원용선 (59/63영문) 고문 1,000만원 | 한우삼 (63/69농학) 부회장 1,000만원 | 김진문 (64/71경영) 부회장 1,000만원 | 서영준 (64/68법학) 부회장 1,000만원 | 송석환 (64/68농경) 부회장 1,000만원 | 이인정 (65/72상학) 부회장 1,000만원 | 나경미 (70/74정외) 부회장 1,000만원

장학기금



김오현 (76/80체교) 부회장 1,000만원 | 전중무 (81/85미술) 이사 500만원 | 김현정 (79/81물리) 350만원 | 손인환 (81/91미술) 부회장 100만원

- ▲이주원(99/03물리) 2
- ▲이주환(55/61정치) 2
- ▲이지영 2
- ▲이지형(89/94철학) 2
- ▲이진호 2
- ▲이창도(85/89무역) 2
- ▲이혜립(78/85회계) 2
- ▲이혜현(89/93농학) 2
- ▲이흥우(62/66농경) 2
- ▲이환균(67/71도공) 2
- ▲이흥곤(66/70영문) 2
- ▲인홍렬(72/76무역) 2
- ▲임근엽(77/83회계) 2
- ▲임종출(81/86화공) 2
- ▲임준형(87/93사회) 2
- ▲임현경(69/76농경) 2
- ▲장영권(47/51경제) 2
- ▲장운순(60/66생물) 2
- ▲장지웅(66/73경제) 2
- ▲전상윤(89/96회계) 2
- ▲전영수(64/01인철) 2
- ▲전영찬(70/77영문) 2
- ▲전유진(99/04컴공) 2
- ▲전중윤(59/63경제) 2
- ▲전철수 2
- ▲전홍국(62/66식공) 2
- ▲정기춘(78/82회계) 2
- ▲정길량(60/64영문) 2
- ▲정도영(87/92법학) 2
- ▲정동근(79/86전산) 10
- ▲정동성(00/08법학) 2
- ▲정란이(90/94농생) 2
- ▲정순덕(75/80국교) 2
- ▲정승석(75/79인철) 2
- ▲정양권(96/98불원) 2
- ▲정용운(99/06경제) 2
- ▲정용호(64/71정외) 2
- ▲정유식(86/92법학) 2
- ▲정진원(99/08회계) 2
- ▲정찬명(90/96법학) 2
- ▲정창근(61/65농학) 2
- ▲정태성(82/89화학) 2
- ▲정태수(72/73행원) 2
- ▲정태영(83/90경제) 2
- ▲정태환(83/90농경) 2
- ▲정현중(67/71농경) 2
- ▲정화영(64/71경행) 2
- ▲조남욱(71/78전자) 2
- ▲조만식(81/87건공) 2
- ▲조승완(81/88건공) 2
- ▲조인희(69/73행정) 2
- ▲조재경(74/78법학) 3
- ▲조재현(86/92식공) 2
- ▲조진권(06/08사원) 2
- ▲조철구(65/72수학) 2
- ▲조충미(81/85교육) 2
- ▲조한구(67/70상학) 2
- ▲죽립사 2
- ▲채택수(64/66일원) 2
- ▲청룡사 2
- ▲최병도(69/76농경) 2
- ▲최병운(82/89경영) 2
- ▲최삼범(90/98물리) 2
- ▲최승호(83/87무역) 2
- ▲최순열(68/72국문) 2
- ▲최안나(87/91영문) 2
- ▲최영란(86/90지교) 2
- ▲최은기(82/86독문) 2
- ▲최종열(86/93일문) 2
- ▲최지성(88/92경영) 2
- ▲최창경(81/86회계) 2
- ▲최혜정(80/84사교) 2
- ▲최흥구(77/80건공) 2
- ▲최효식(64/71사학) 2
- ▲철장사 2
- ▲편준호(96/04회계) 2
- ▲하경화(84/88연영) 2
- ▲하성주(87/91경영) 2
- ▲하재운(70/74통계) 2
- ▲하지철(98/01경영) 2
- ▲한갑전(58/65국문) 2
- ▲한승찬(84/91경제) 2
- ▲한정목(71/75국교) 2
- ▲한천수(74/81건공) 2
- ▲허동화(55/57법학) 2
- ▲허은(00/04경제) 2
- ▲허창식(75/82영문) 2
- ▲허환(89/92행원) 2
- ▲홍낙기(72/79미술) 2
- ▲홍순평(63/68상학) 2
- ▲홍승하(70/74농학) 2
- ▲홍윤식(58/62국문) 2
- ▲홍태환(81/85사회) 2
- ▲홍화순(66/68정외) 2
- ▲황동용(83/90경영) 2
- ▲황룡사 2
- ▲황순영(78/83연영) 2
- ▲황윤철(95/98정보산업) 2
- ▲홍복사 2
- ▲무기명 4명 8
- ▲동국교수합창단 300
- ▲경행골프회(회장:박재승) 300
- ▲건축동문회(회장:제영권) 100
- ▲김덕상(77/81교육) 50
- ▲배충남(62/66상학) 10
- ▲윤애영(92/96회계) 5

CMS 납부자

- ▲김영순(65/69화학) 60 부회장회비 3번
- ▲이은종(63/68상학) 4 평생회비 2번 (평생회비30만원)
- ▲강태원(69/73물리) 2 회관건립기금 무통장 입금 2번
- ▲김명길(70/74공업경영) 10 장학기금 2번
- ▲김철완(88/96법학) 20 장학기금 2번
- ▲안한상(66/70국문) 2 장학기금 2번

장학기금

- ▲동국교수합창단 300
- ▲경행골프회(회장:박재승) 300
- ▲건축동문회(회장:제영권) 100
- ▲김덕상(77/81교육) 50
- ▲배충남(62/66상학) 10
- ▲윤애영(92/96회계) 5

‘아름다운 동행’

모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방식은 알려주신 계좌 내용으로 총동창회 사무처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출금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임원회비/평생회비(50만원)를 CMS를 통해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및 개인정보 변경은 02)733-3993으로 연락주시시오.
- 장학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 후원신청서(CMS)

성명			E-mail		
출입구분	학과(대학원) 입학	년 / 졸업	년		
주소					
전화	자택	직장			
후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동창회관건립기금 <input type="checkbox"/> 평생회비 <input type="checkbox"/> 임원회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CMS통장 자동이체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핸드폰 요금이체	통신사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F <input type="checkbox"/> LGT	핸드폰번호		
	무통장입금계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월5만원 <input type="checkbox"/> 월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월 원)				
의견란					

※ 이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02-733-3992)로 총동창회 사무처에 보내주시시오.